

순천시, 내년 예산 80% 상반기 집행... 경제 활성화 총력

‘민생안정대책반’ 구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30억원 규모로 확대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1인 30만원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 추진

순천시가 지속하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한 ‘민생안정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는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전략

으로 ▲내년 예산 신속집행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을 추진한다. 내년 전남도 내 최대 규모의 본예산으로 확정된 1조 4849억원 중 80%를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실질적인 내수진작과 지역 체감경기 개선 등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분기에는 운송원가 상승으로 힘들어진

기존 경사사업은 절차에 따라 빠르게 추진하되, 연말 대책회의를 통해 발굴될 긴급 민생안정 사업에 대한 예비비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이자·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순천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울 특례보증을 내년부터 2배로 늘려 총 3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1220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 연중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관내 버스와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될 노후 아파트 67개소에 시비 37억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동절기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경로당에는 식재료 구입을 위해 1개소당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가정원 운영 수익금 110억원은 노

인·영유아·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온기가 전해지도록 재투자된다. 이는 경로당 회차 활동비 및 출생수당 지급 등 개별별 필요한 시책에 투입되며, 내년 중 7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불확실한 정치, 경제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적극적인 국비 확보로 예산이 더 늘어남 만큼, 내년 초 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소원을 말해봐’

후문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에 카드 달고 인증샷 남기면 상품 네이버 폼 접속... 다음달까지

“새해 소원 쓰고, 상품도 받는다.” 곡성섬진강기차마을이 연말연시를 맞아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를 내년 1월말까지 갖는다. 이번 이벤트는 곡성섬진강기차마을 후문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원카드를 작성해 매달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벤트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1월31일까지이다.



참여방법은 ▲소원나무 옆에 준비되어 있는 소원카드에 새해 소망 등을 적는다. ▲정성스럽게 작성한 소원카드를 소원나무에 달고 본인 얼굴이 나오도록 인증샷을 찍는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폼(https://naver.me/FBeyL6C1)에 접속해 인증샷을 올리면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2월 중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차마을 관계자는 “추운 날씨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올 해를 행복하게 추억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2025년 새해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한 소망들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후문 광장의 트리는 높이 10m 규모의 대형 트리로 다양한 장식물과 전구로 장식돼 있다. 한편 섬진강기차마을은 국내 최대 기차테마파크로 총 면적이 24만㎡에 달한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곡성역사와 근대 증기기관차를 재현한 ‘미카 129’를 핵심 콘텐츠로 레일바이크, 미니

관, 생태학습관, 치치뿌뿌놀이터, 놀이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연간 6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고흥에 전국 최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도덕면 일대 64ha 규모 원예단지 ...가공·유통시설

고흥군이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를 보유하게 됐다.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돼 64ha 규모 스마트팜 원예 단지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처음 이뤄진 것으로 고흥은 육성 지구로 지정된 4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다. 도덕면 일원 스마트팜 혁신밸리(33ha), 스마트팜 창업 단지(20ha), 스마트 원예 단지(11ha)가

포함됐다. 육성 지구는 청년 농업인 유입을 확대하고 농업 법인 중심으로 가공·유통시설 등 전후방 산업을 집적해 스마트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교육, 실습, 창농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고흥군은 전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9년까지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을 구축해 1천여 명 이상 청년이 취·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고흥을 대한민국 스마트팜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신년 해맞이는 보성 읍포해수욕장에서

드론라이트 쇼·달집태우기·타악 공연 등 해맞이 행사

보성군이 내년 1월 1일 아침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해맞이명소 읍포해수욕장에서 을사(乙巳)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보성라이온스클럽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해맞이 행사는 힘찬 출발을 뜻하는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는 보성군립국악단 공연, ‘보성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700여 대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는 드론라이트 쇼 등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는 방문객들을 위한 떡국 무료 나눔 행사, 차 시음 부스, 새해 희망 쓰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해맞이 행사에는 보성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길이 100m의 ‘뽕’ 형상의 달집태우기 행사를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주차 관리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장 인근에 9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보성군 각 읍면에서도 개별적으로 소규모 해맞이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남해화학, 어르신 미끄럼방지 사업 후원

여수시 노인복지관에 5000만원 후원금 전달식



남해화학(주)이 지난 19일 ‘노인 세대 미끄럼방지 설치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여수시에 후원했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과 남해화학(주) 김창수 대표이사, 남무현 사회봉사단장, 문성균 사회봉사단 총무, 김진우 여수시노인복지관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금으로 여수시노인복지관은 향후 5년간 저소득 독거노인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수 남해화학(주)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을 통해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해화학 임직원들의 온정이 전해져 어르신들이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휴대폰에 쓱~ 여수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내년 2월7일까지...QR·IC 주민증 중 선택

여수시가 27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적으로 발급한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여수시가 ‘9개 지자체 시범 발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으로, ‘QR 주민등록증’ 또는 ‘IC 주민등록증’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17세 이상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해야 한다.

하나는 장점이 있다. 시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신규자가 IC 주민등록증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신원확인이 가능해 더욱 편리한 일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여수시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의 시범 발급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중앙도정공장 이웃돕기 성금 2천만원

중양도정공장이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성금 2000만원을 지난 20일 구례군에 기부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중앙도정공장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김성수 중앙도정공장 대표는 “최근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업 성장의 결실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실천이 늦어졌다. 이제라도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기부하기 쉽지 않은 큰 금액을 흔쾌히 기탁해주시는 중앙도정공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 농업인 감 등 10개 품목 실용교육

광양시가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연계 교육이다. 시는 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작물 재배 기술 및 병해충 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농업인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이며 교육 장소는 시립 포장 내 광양시 농업인교육관 2층 강당이다. 감·벼·플럼코트·복숭아(핵과류), 가공

장형, 양봉 등 10개 품목의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전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업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광양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이 진행되는 2일 전까지 전화, 온라인(네이버폼) 또는 가까운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061-797-36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